

지구온난화 돈육생산성에도 타격

—홍 보 부—

지구의 온난화가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가축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축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.

최근 일본 농수성 등이 처음으로 정리한 축산분야의 온난화 영향예측이 지난 5월 25일 밝혀졌다. 평균 기온이 2~3°C 상승하면 양돈에서는 연간 총 지육량이 3% 감소하고, 계란은 소란이 증가하며 유우는 유량과 유지율이 떨어진다. 방서대책을 해도 생산성의 효과는 그 대책비를 상회하고 생산비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.

조사는 「지구온난화가 가축에 미치는 영향과 방지대책」이다. 2~3°C 상승되는 온도 패턴을 전제로 실측치와 과거의 폭염이 극심했던 해를 참고로 영향을 산출했다. 일본 농수성 규슈농업시험장과 축산시험장, 일본대학농수의학부가 각각 유우, 양계, 양돈에 대하여 조사했는데 축산기술협회로부터 곧 보고서로 나온다.

유우의 영향은 8월의 최고기온 평균치(32.5°C)가 일본에서

가장 높은 낙농지대, 熊本縣의 실측치로부터 추측했다.

'90년 8월 熊本縣에서 생유 수집 기준치로 있는 유지율 3.5%를 달성할 수 없었던 농가는 16%였다. 고온에서 사료섭취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. 게다가 유방염이 증가하고 생유중의 세균수는 8월을 중심으로 증가한다. 고온에 따른 스트레스는 번식장애도 일으킨다. 체온이 39.4°C 이하일 때의 수태율은 60% 이상이지만, 40.5°C 이상에서는 수정시킨 소 전체가 수태가 되지 않았다. 유량은 기온이 24°C 이상에서 감소가 시작되고 28°C 이상에서 급격히 감소한다.

양돈은 일본 여름보다도 3°C 높은 대만의 예를 기초로 추계했다. 서열조건에서는 번식에 영향이 심각해서 생존 산자수가 적어진다. 모돈의 무발정, 배란수의 감소 등과 수태지의 성욕 감퇴, 정자수의 감소와 사망이 현저해서 번식돈의 서열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. 3°C 온난화 했을 때의 전국 평균 예측으로는 연간 총 지

육량은 현재보다 3.27%인 5만1천톤이 감소될 것이다.

채란계의 경우, 환경온도가 변해도 산란수는 거의 연간 260개로 일정한 수를 나타내지만, 22°C를 초과하면 계란은 소형화하고, 25°C를 넘으면 MS규격 이하가 2/3 이상을 점해 경제가치가 떨어진다.

일본 농수성 축산종합대책실은 「온난화의 영향은 서일본에서 크므로 여름철 대책, 즉 양돈에서는 내서성을 갖춘 개체선발이 필요할 것이라」고 한다.



지구온난화란 ?

지구온난화란 이산화탄소, 메탄 등의 온실효과 가스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.

UN은 현재의 상태대로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21세기 말에는 평균 기온이 3°C상승한다고 예측했으며, 농림수축산업에의 영향도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다.